

2017 새 설계

최형식 담양군수

# “담양 미래 천년 디자인...생태·인문학 도시 만들기 박차”



“2017년에는 ‘담양다움’의 특성과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생태도시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미래 담양 천년’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3일 “올해는 생태도시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인문학을 통해 소득 3만달러, 인구 7만명의 자립형 생태도시를 만들어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새해 의지를 밝혔다.

최 군수는 이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과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사업 등을 추진해 풀뿌리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담양 3대 현안 핵심사업을 가시화해 담양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군수는 올해 역점 시책으로 ▲인문학을 통한 담양 미래 천년 디자인 ▲생태도시화 정책 지속화 ▲소득 3만달러,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구축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박차 ▲메타프로방스, 일반산업단지 가시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인구유입 등을 제시했다.

최 군수는 “특히 ‘담양’이란 지명이 사용된 지 천년이 되는 2018년을 준비하는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담양다움을 생태도시와 인문학

## 700만 문화관광도시 기반 구축

### 글로벌 종자 육성 등 농업 지원

### 소득 3만달러·인구 7만명 실현

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미래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원동력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또 “선조들이 천년 전 정명하신 ‘담양’ (담·陽(별 양))이란 지명이 갖는 해석상의 의미와 현재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화 정책이 딱 들어맞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군민과 향우,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700여 공직자의 땀과 열정으로 전남관광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 선정,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성공 개최를 통한 음식 문화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등 700만 관광시대를 활짝 여는 쾌거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이어 “사실 담양은 관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초라한 연간 1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이었으나, 이제는 죽녹원을 기반으로 시작된 담양의 관광정책이 성공하면서 관광중심 도시로 거듭났다”며 “700만 문화관광도시를 기반으로 죽녹원을 관광축의 거점으로 생태관광축,

역사관광축, 마을별 체험축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군수는 또 “현재 분양중인 일반산업단지는 전국 최초로 전체 면적의 40%가 공공시설 및 녹지대로 구성되는 생태적 산업단지로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입주 기업들에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정분야의 지원·발전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 군수는 “자체 개발한 신종종 말기 ‘죽향’은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유럽과 캐나다, 베트남 등에 품종출원과 함께 종자를 수출함으로써 2020년부터는 연간 수익원의 외화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아닌 군 단위의 지자체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낸 ‘죽향’ 말기의 종자 수출을 계기로 살아 육포 공금시설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온 최 군수는 장애인과 어르신, 여성,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복지정책도 더욱 강화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 2017년 주요 역점 사업은

- ▲인문학을 통한 담양 미래 천년 디자인
-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화 정책 지속화
- ▲소득 3만달러, 인구 7만명의 자립형 도시 구축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박차
- ▲메타프로방스,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여기에 민선 6기 이후 타지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는 ‘담양식 명품 공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역사와 문화, 자연과 정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인문학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 군수는 또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투명한 인사정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군수는 “민선 6기 들어 약속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이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는 투명한 인사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면서 “활력 넘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기반으로 건전한 재정,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완성시켜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담양군 지난해 ‘상복 터졌네’

공모 48건·평가 26건 표창 등 273억원 확보

### ‘대숲맑은 담양살’ 명품쌀 대상도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이 2016년 한 해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 등에서 주요 상을 휩쓰는 등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48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68억원 확보하고, 각종 평가에서 26건의 기관 표창을 받아 5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2017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70억원), 돌아온 담양 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24억 4000만원), 고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20억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20억원) 등 지역 인프라 확충 사업이 꼽힌다.

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12억 3000만원), 2017 종자산업기반구축(10억원) 등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담양군 고유의 강점에 집중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됐다.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관광 우수축제 평가에서는 대나무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며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실적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으로 상사업비 9000만 원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전남관광대상 평가 ‘대상’, 전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 등 각종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상을 휩쓸었다.

기관표창 외에도 경사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영산강 시원의 맑은 물과 별, 농업인의 정성이 키워낸 ‘대숲맑은 담양 쌀’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최고급 브랜드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 순천만정원 ‘별빛축제’ 인기몰이... 전국서 관광객 몰려

3D 파사드 나이트 공연 등 환상적

순천만국가정원의 별빛 축제가 인기몰이 중이다. ‘관광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별빛 축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축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서문광장에 다채로운 빛의 조형물과 서양의 고성 형태 조형물을 이용한 3D 파사드 나이트 공연 등 환상적인 ‘빛의 정원’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특히 3D 파사드 맵핑 기술은 일본 오사카시의 야간 경관을 연출로 유명한 기술진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겨울밤 순천만정원을 ‘빛의 정원’으로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서문 입구에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7년의 소원을 기원하는 ‘기원의 나무정원’가 배치됐으며, 국가정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순천의 상징인 흑두루미 동지와 알을 형성화한 동지정원, LED 캐슬정원 등 마치 동화 속을 걷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



기를 만끽할 수 있다.

또 IT기술을 이용한 빛과 음악이 콜라보된 화려한 나이트 쇼와 달빛과 별빛의 은하수 강으로 연출된 은은한 산책로 등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습지센터 실내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한 빛 조명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버스킹 음악공연과 따

뜻한 먹을거리를 마련해 가족·연인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별빛축제가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랫장 야시장과 함께 겨울밤 순천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즐길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2016 순천시민 사회조사 10명 중 7명 “삶에 만족”

순천시민 10명 중 7명은 현재의 삶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순천시 1000여 가구,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가족, 소득·소비,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13개 부문 65개 항목에 대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3점(명)으로 전년 대비 0.6점이 상승했다. 이는 전남평균보다 0.5점이 높은 수치다.

행복지수도 평균 7.2점(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0.9점 상승했으며, 분야별 행복지수는 가족과 친구, 자연환경에서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정에 대한 행복지수는 6.6점으로 낮았다.

시민들은 또 순천시를 방문한 손님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 명소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을 꼽았다.

이와 함께 순천 시민 10명 중 8명은 ‘3년 뒤 순천시가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순천시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90.7%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화제의 상가 분양]** 적은 투자로 매달 따박 따박 월 임대료 받으세요~

## 광주 투자자들 선호하는 Home plus 와 CGV\*1층상가 12월 오픈 예정!

**1층 수평형 Mall+56% 테라스 설계/고객순환형 동선설계+일반상가 보다 높은 6m 층고**

▶예상 수익률 표 (VAT 미포함) 단위: 원

계약면적 21.83 (구)평	계약면적 25.47 (구)평	계약면적 35.64 (구)평
실투자금 207,400,000	실투자금 273,000,000	실투자금 298,800,000
보증금 20,000,000	보증금 30,000,000	보증금 30,000,000
월 임대료 1,800,000	월 임대료 2,400,000	월 임대료 2,600,000
년 임대료 21,600,000	년 임대료 28,800,000	년 임대료 31,200,000
대출시 연수익 16,294,000	대출시 연수익 21,730,000	대출시 연수익 23,528,000
수익률(예상) 7.9%	수익률(예상) 8.0%	수익률(예상) 7.9%

\*대출 40%, 금리 3.5% 기준

분양문의 **062)412-2237**